

세이비어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주일, 수요일, 토요일 예배 말씀 성경
 주일 - 고린도전서
 수요일 - 시편(시편 7편)
 토요일 - 빌립보서
-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흠뻑 기도합니다.
 -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 성도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 및 아시안 혐오범죄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5월 생일자 - 축하드립니다.
 양기쁨(2일), 배한우(9일), 정광명(14일), 문선신(15일) 백승숙(16일), 안영남(23일)

일자	주일 1부	주일 2부	친 교	안 내
05/02		송명건		
05/09	박명자	송 섭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9시 30분	본당
주일예배(2부)	주일 오전 11시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30분	본당
유,초등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주일학교 예배실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중고등부 예배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9시 30분	성가대실
성경공부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1층 친교실
새 가족반	주일 예배 후	1층 친교실

이번 주 설교

본문: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제목: 잠잠하라?

- 기도제목: 1.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소서.
 2. 복음은 모든 차별을 거부함을 바르게 알게 하소서.
 3. 우리 안에 남아 있는 차별에 대한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들어가는 말

고린도전서 14장 34절에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 당혹스러운 말씀입니다. 교회의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더 높은 한국교회의 현실 속에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사도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1. 고린도 시대의 여성의 위치
 사도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썼던 그 당시의 여성의 지위는 지금과 비교해보면 형편없이 낮았습니다. 로마제국의 남자들은 남자와 여자가 절대로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시대에 일반적인 여자에 대한 생각은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가축이나 물건과 같이 소유물로 여겨던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와 같은 시대에 사도바울은 남자와 여자에 대한 핵폭탄과 같은 메시지를 던지는데,

2. 사도바울의 전한 차별없는 복음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부터 남자와 여자를 동등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자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고, 여자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문제는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는 차별들, 남녀의 차별, 인종의 차별,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부자와 가난한 자의 차별,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차별의 문제는 결국 죄의 문제이고 죄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차별의 문제가 고쳐지게 되고 나아지게 됩니다. 사도바울이 복음을 전한 고린도지역은 남녀차별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헬라인 그리고 자유인과 노예들의 차별이 극심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사도바울이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도바울의 남자와 여자에 대한 생각은 그 당시 고린도지역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그런데 왜 사도바울은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였을까요?

3. 잠잠하라는 이유

첫 번째 이유는 고린도교회는 아마도 헬라어로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성들은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었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학교에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도중에 남편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특히 여자들 중에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회중석에 앉아있는 여자들 중에서 자꾸 떠들어서 예배를 진행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장 35절에 교회에서 말하지 말고 집에 가서 궁극한 것들을 남편에게 물어보라고 하였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고린도교회에 여성들 가운데 은사를 받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은사를 받은 자들 가운데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체험한 여러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 시간에 자신이 받았던 체험들을 앞서워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4장 32~33절에 사도바울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운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잠잠하라'는 말씀입니다.

나가는 말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요즘 한국 땅에 많은 이민자들이 와서 살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가요?
 나는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는가? Black lives matter! Black is matter!
 이 땅에서 만나는 흑인들 스페니쉬들!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들을 대하는 태도들! 저 또한 조심해야 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복음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세이비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

	1부: 오전 10시 2부: 오전 11시 30분	수요예배(8시PM)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시편 강해 말씀: 정요한 목사 (시편 7편)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 송영 Invocation	사회자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나는 예배자입니다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71번 (어린이주일)	
찬 송 Hymn	453장(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기 도(Prayer)	1부: 정경학 권사 2부: 송명건 집사	토요새벽기도회
성 경 Scripture	고린도전서 11장 2~6절	
설 교 Message	잠잠하라?	빌립보서 강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립니다 토요일 오전 6시 30분
▲ 찬 송 Hymn	265장(울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교회 후원 선교사

김덕래, 김홍덕, 정철웅, 이상진,

교회 지원 단체

뉴욕 밀알선교단, 뉴욕 농아인 교회, 주님의 식탁
한밀교회(한국)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교육전도사 김호진 Paul Lee 지휘자/반주자 김타마라

45-25 162nd St Flushing NY 11358

Tel : (929) 225-0656 / www.mysaviorchurch.com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